

제 1회 무등기 사회인야구 '지왕리그' 17팀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슬러거스 (대표 박유찬)

1999년 창단.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졸업생으로 시작한 전통 있는 팀. 'sports for all'을 외치며 즐기는 야구를 추구한다.
감독 조창민 ▲총무 박유찬
선수 남정우 정길호 이경수 김후균 정현당 이연수 백광열 유재영 오현호 정광진 전수호 최인엽 백성균 정인호

버스터즈 (대표 김영곤)

2006년 창단. 젊은 팀원들이 주축이 된 버스터즈는 경험보다는 패기를 앞세워 무등기 돌풍을 예고한다.
감독 박석호
선수 박동훈 황재원 노순섭 추성종 김현호 김성권 박재령 문창원 김영곤 최성일 천두연 황인규 김태균 류호철 박준규

진우레인보우 (대표 최현영)

2007년 창단. 엠마우스복지관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레인보우가 토너먼트의 짜릿한 승부에 도전한다.
감독 최현영 ▲선수 이춘범 이권 김수용 구현 김건우 김윤배 하광철 나요환 문지환 류재중 이태인 이흥의 차지도 최영선 최우석 문연은 이석원 박영환 이진 장재호 김두천

브라더스 (대표 김광희)

2009년 창단. 친형제와 형제만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끈끈한 우애를 과시한다. 팀워크를 앞세워 무등기 아름다운 추억을 그린다.
감독 김광희 ▲코치 김연봉 ▲총무 김지겸
선수 강대만 정병욱 김태형 김현국 박재정 김현욱 임재근 김광일 임영훈 강철성 박종호 이창복 이준형 김필호

광호크스 (대표 김철오)

2009년, 광주 첨단 한국과학기술원 직원들과 관련 업체 직원들이 한데 뭉쳤다. 무등기에서 팀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감독 김철오 ▲코치 문준호 이은재 박준홍 ▲총무 박강민
선수 박장훈 양간일 이윤철 최창호 고병석 노사식 박준재 신현식 이주현 정정욱 조병수 김일호 조영선 유현호 유인수

전남대OB (대표 김태훈)

1992년 창단.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대학야구동아리로서의 전통을 이어 최선을 다하는 야구, 예절을 지키는 야구를 다짐한다.
감독 김태훈 ▲총무 조계수
선수 이종현 양동빈 김찬구 이승준 이욱 김오동 윤영의 강승훈 장경순 한영석 강경주 변영선 정도은 심기은 김기환 박용석 김택원 임대근

대한슬러거스 (대표 황용규)

2009년 창단. 대한페이퍼텍(주) 동호회로 시작한 대한슬러거스, 열정과 실력을 바탕으로 무등기 돌풍을 준비한다.
감독 황용주 ▲코치 강성준 ▲총무 이준호
선수 배광석 안현식 김성연 손승수 박홍진 박재진 박찬균 고준성 오창진 윤찬수 황인도 김영철 윤종민 임호주 서재규 정명환 김영철 김지훈

다크클라우드 (대표 강영철)

2011년 창단. 야구를 좋아하는 선구배들이 열정 하나만으로 모여 만든 신생팀. 하지만 끈끈한 팀워크로 무등기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하겠다.
감독 강영철 ▲코치 양동찬 이정석 ▲선수 최정성 임영한 문병관 윤성철 이승훈 최현석 정진우 배재일 박성준 임창영 김태문 정영진 류진웅 민재웅 이승운 정길호

나이너스 (대표 윤형환)

2000년 창단. 선수 출신은 없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과 끈끈한 팀워크로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무등기 다크호스.
감독 윤형환 ▲총무 김성준 ▲코치 최정재
선수 강유영 강재춘 김승영 김준성 김창수 김철현 노신배 동성 배동태 이상국 이상봉 임준석 조태현 최광명 장재호

하리마오 (대표 박승완)

2009년 창단. 야구에 대한 사랑으로 나이 장벽을 뛰어넘은 하리마오, 우승을 목표로 무등기 새 역사를 준비한다.
감독 박승완 ▲코치 강신권 김현식 위성표 ▲총무 김유창
선수 이승우 임효현 이호준 정동혁 이상무 박인성 나승민 이길용 김영승 나태현 이기호 박대순 추병관 김호진 임성우 김민규 김광민

화이트스카 (대표 오현승)

2003년 창단. 선수출신은 없지만 끈끈한 단합력으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화이트 스카, 패기 넘치는 아마추어 야구의 매력을 보여주겠다.
감독 김기태
선수 김선호 심재일 송광욱 윤광수 김대만 오현승 신동훈 임효석 이승준 한성호 류진정 남남 김중호 한성운 조재현 엄정도 김경수 정주현 류명훈

재규어스 (대표 정경국)

2001년 창단.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실력을 바탕으로 무등기 초대 우승팀 자리를 넘본다.
감독 김지현 ▲감독 정경국 ▲코치 국병석
선수 김승철 신민철 서동관 김성주 서승철 윤계성 김형석 이태훈 박상진 김민영 임수철 문상준 최경민 홍길준 홍윤창 김상선 홍성준 김용은 박선열 임현석 김현지 박대준

에스캡스카이 (대표 기호담)

2010년 창단. 광은 비즈니스(주) 소속의 직장리그 강자, 야구라는 열정으로 함께 뭉쳐 정상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감독 이도훈 ▲선수 김영경 진종범 임규태 김종환 백상엽 김경태 고형석 신용관 오영민 안재식 최용빈 장정원 김진주 신정훈 이종재 오한내 김승일 주민호 최영호 성요한 송동수 남태혁 나상민 서재양

액터스 (대표 김재형)

2002년 창단. 함께 팀을 꾸렸던 창단멤버들이 그대로 야구 열정을 불사르며 단단한 팀을 구성,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응화로 그라운드를 누빈다.
감독 김재형 ▲코치 박보건 류호진 ▲주장 박보현 ▲선수 이범석 이현준 류호남 노남규 정진우 김영민 김영필 박삼기 김태환 김승기 홍석 신성식 조홍찬 박찬동 최시영 이주환

광주레인보우 (대표 문신화)

2010년 창단. 1983년 친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팀, 창단 1년이 되지 않은 신생팀의 첫 도전이다.
감독 문신화 ▲코치 임호진 ▲총무 임우석
선수 인찬식 박현상 김정주 이광은 박대권 김상현 홍찬우 김중용 여명현 강남호 이상태 김준용 김준서

스원드래곤즈 (대표 김형현)

2007년 창단. 광산구 송정리를 중심으로 한 이웃 사촌의 정을 발휘, 실력보다는 열정과 프로 같은 마음으로 무등기 이변을 꿈꾼다.
감독 김형현 ▲코치 박종산 김희진
선수 김승철 안병준 정재명 최희동 유석원 김정민 서탄우 손찬형 윤성현 나보균 이기남

스틸 (대표 이종우)

2009년 창단. 전남대 체육교육과 출신이 주축이 되어 올 광주베이스볼리그에 첫 발, 즐기는 야구를 꿈꾼다.
감독 이종우
선수 국두홍 박동수 박정출 백승철 박형식 이시정 한승민 이현승 이대규 소대호 박현수 이종민 이태훈 이혜승 민장기 김장연 신홍희 김규봉 김성민 정재영 손기정 박영배



“두 토끼 사냥”

윤석민, KIA 2위·투수 3관왕 도전

윤석민 '트리플 크라운'

다 승 : 15승-1위
방어율 : 2.33-1위
탈삼진 : 156-1위

오늘 삼성전 선발 “파워와 과감한 피칭으로 승부”

KIA 에이스 윤석민이 팀의 2위와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1주일의 휴식을 끝낸 KIA 타이거즈가 8일 홈에서 선두질주중인 삼성 라이온즈와 격돌한다.
끝나지 않은 2위 싸움의 불씨를 지피려는 KIA와 1위를 굳히려는 삼성의 힘겨루기가 예고된 가운데 KIA 마운드는 에이스 윤석민이 책임진다. 지난 1일 롯데와의 최종전에서 로페즈에 이어 중간계투로 등판했던 윤석민은 1주일 만에 마운드에 선다.
윤석민은 “경기 공백이 있어서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팀의 2위 싸움에 중요한 경기인만큼 며칠 전부터 머릿속으로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8일 경기에 집중했다”고 삼성전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올 시즌 삼성전에 5차례 등판한 윤석민은 2.27의 방어율로 3승3패, 37탈삼진을 뽑아냈다. 지난달 12일 대구 원정에서 최영우에게 연타석 홈런을 허용하며 패전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삼성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

래서 오히려 부담감도 생긴다.
윤석민은 “삼성전에서 완봉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올 시즌 좋은 승부를 펼쳤다. 그래서 자신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6번째 만나게 되는 만큼 공이 삼성 타자들의 눈에 익었을까봐 걱정도 된다”며 “파워와 과감한 피칭으로 승부를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민이 노리고 있는 승리는 팀의 2위 싸움을 위한 천금같은 1승이기도 하지만 프로 야구 역대 세 번째 트리플 크라운 주인공 꿈을 위한 거름이기도 하다.
윤석민은 7일 현재 2.33의 방어율로 15승 4패1세이브 156탈삼진을 기록하며 방어율·다승·탈삼진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트리플 크라운은 프로야구 30년 역사에서 선동열과 류현진 단 두 명의 선수만이 가져간 귀한 타이틀.
윤석민은 “3관왕을 위해 넘어야 하는 산은 LG의 박현준과 내 자신이다. 박현준이 13승으로 내 뒤를 바짝 쫓고 있어서 다승 타

이들이 가장 걱정된다. 무엇보다 남은 후반기 등판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다. 끝까지 집중해 현재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승률 타이틀도 욕심이 나는 부분이다. 윤석민이 0.789로 승률 1위, 삼성 안지만이 0.733로 추격을 하고 있다. 8일 삼성과의 경기는 승률 싸움의 흥미로운 무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민은 “MVP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가장 큰 영예다.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MVP에 욕심이 난다. 그러나 개인 성적에 앞서 팀 성적이 우선이다”며 “지난해 부진했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팀에 큰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올 시즌 더 이를 악물고 시즌을 준비했고 모든 경기에서 전력으로 공을 던졌다. 에이스라는 이름이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다. 시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에이스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K 2군 감독에 김용희씨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김용희(56) SBS ESPN 해설위원을 2군 감독으로 영입한다고 7일 발표했다.
김용희 감독은 연봉 1억2000만원을 받고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SK 2군을 지휘한다.
김용희 감독은 프로야구 원년부터 롯데에서 뛰면서 두 차례나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스타 선수 출신이다.
SK는 선수 은퇴 후 롯데와 삼성 등에서 1, 2군 감독을 역임한 김 감독이 2군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SK는 지난달 김성근 전 감독을 해임하고 이만수 2군 감독을 1군 감독대행으로 불러올렸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600만 관중 돌파 ‘초읽기’

KIA 홈 관중 53만4304명

서른 살 한국프로야구가 역대 처음으로 한 시즌 6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뒀다. 7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올 시즌 532경기 중 444경기를 치른 지난 6일 현재 입장 관중은 총 578만2403명이다. 경기당 평균 1만3023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이는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대 관중이 들어선 지난 시즌(592만8626명·경기당 평균 1만1144명)과 비교하면 16%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 시즌 444경기를 치렀을 때에는 500만 관중(500만3703명·경기당 1만1270명)을 갱신했다.
이제 시즌 최대 관중 신기록 수립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21만7597명만 더 경기장을 찾으면 사상 첫 600만 관중 시대를 열기 때

문이다.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말에는 새 역사가 쓰일 가능성이 크다.
KBO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밀린 경기가 많았음에도 상위권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각 구단의 야구장 관련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마케팅이 이루어져 관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8개 구단 모두 지난해보다 관중이 늘어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인 팀은 3위를 달리는 KIA 타이거즈다.
지난해(40만9207명·경기당 6936명)보다 31%나 늘어난 53만4304명(경기당 9056명)의 관중이 KIA의 홈 경기를 지켜봤다.
이어 LG트윈스(29%)와 넥센 히어로즈(25%), 한화 이글스(16%)도 8개 구단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합뉴스

www.geumsooan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